

人文論叢

80권 4호

2023년 11월

# 기획 논문 2



기획의 말

/

## 실험언어학을 통한 문법연구

언어를 인간의 두뇌활동 산물로 보는 현대 언어학에서는 언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방법론을 활용한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직관판단이나 자료조사에 기반한 전통적인 언어데이터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재된 언어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실험언어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실험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언어이론과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정교하게 고안된 실험 디자인과 통계처리가 가능한 양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언어이론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쟁하는 여러 언어 가설들이 서로 다른 예측을 할 경우 이를 실험방법론을 사용하여 검증하여 보다 타당성이 있는 언어 가설을 찾아낼 수도 있다. 실험언어학 방법론은 서로 다른 언어 집단 간 비교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언어 습득 연구에서 실험언어학 방법론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아직 문법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들은 여러 단계의 중간문법을 거쳐서 모국어의 체계를 습득해 간다. 연구자는 아동의 가변적 문법 체계와 잠재된 언어지식을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험언어학 방법론을 고안해야 한다. 모국어 습득이 완료된 성인 언어학습자의 경우도 제2언어를 습득하면서 여러 중간문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들 제2언어 학습자의 문법체계의 발달과 완성 역시 실험언어학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언어학과 심리학의 경계선상에 있는 언어 현상

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언어 현상이 언어지식 고유의 작용에 의해서 설명되는지, 일반 인지와 처리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지, 언어와 인지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등 학제적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언어학 연구에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을 접목한 실험언어학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직관실험연구, 안구운동 추적연구, 자기조절 읽기연구, 신경언어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언어학 연구의 발전은 언어를 인간 정신활동의 정수로 이해하는 현대 언어학의 발전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본 기획연구는 현대 언어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실험언어학의 기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연구자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실험 디자인과 연구방법론을 고안하여 이를 논문으로 발전시킨 결과물들을 담고 있다. 실험언어학의 연구는 각 연구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과 공동연구로 이루어지는데, 본 기획연구에 소개된 세 편의 논문 역시 연구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전문지식을 융합한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세 논문 공히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언어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언어학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의를 가진다.

고희정·김현우·강초룡의 논문은 한국어 영논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험언어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해석과 그 이론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국어의 영논항에 대한 이론은 크게 생략 분석(ellipsis analysis)과 영대명사 분석(null pronoun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험언어학적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론은 영논항의 해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예측을 하는데 이를 실험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또한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보다 종합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영논항의 엄밀해석(strict reading) 선호를 지지하는 데이터를 보여 주면서도 영논항을 단순히 영대명사로 볼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영논항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분석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연구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강초롱·김현우·고희정의 논문은 구조적 점화 효과가 영목적어 구문의 중의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영목적어 구문은 영목적어가 그것에 지칭을 주는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실험연구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이 영목적어를 해석할 때 앞서 처리된 영목적어의 해석이 점화 효과를 일으키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흥미롭게도 점화문과 목표문에 동시에 영목적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구조적 점화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구조적 점화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이 통사적 구조뿐만 아니라 어휘적 반복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소리 없는 언어 구조체의 해석과 처리에 대한 기존의 심리언어학적 연구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현우·김기택·조규희의 논문은 다양한 심리언어학적 처리요인들이 아동의 제2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아동의 모국어와 심리언어학적 요인들이 한국어의 부정어와 양화사의 해석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중국어 또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여 한국어를 제2 언어로 습득하고 있는 아동들이며, 이들에게 한국어 양화사 해석과 관련된 진리치 직관실험(truth-value judgment task)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아동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들과 매우 유사한 양화사 해석 패턴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아동이 제2 언어의 단어 인출(L2 word retrieval)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한국어 양화사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반면, 제2 언어의 숙련도나 작업기억능력과 같은 유력한 심

리적 요인들은 양화사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어휘처리 능력과 문장 이해 능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기획연구는 실험언어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언어문법연구가 이론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가 이론언어학, 실험언어학, 심리학, 인지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와 인지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론 연구자들과 실험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연구, 협업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과학적 이해가 보다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희정**